



November Story About Hamutuk Díli Team

In Timor LESTE

Report Contents

1. 딜리에션 무슨 일이?

2. 중간격려 댄 무슨 일이?

3. 로뚜뚜에션 무슨 일이?

4. 개인에세이 및 사진전

DOMINGO	SEGUNDA	TERSA	KUARTA	KINTA	SESTA	SABADU
			1	2 강호간사님 집 집들이	3 카페일손돕기	4 카페일손돕기
5 밑반찬 만들기	6 YMCA 피스컵 관람 및 응원	7 한국 대사관 방문	8 더프라미스 청년 센터 '보푸' 그룹 방문	9 Sentru Formasaun Ba Juventude no comunidade 청년 센터 방문	10 양동화 간사님 공항 마중	11 중간격려 보고회 준비
12 ymca 센터 축구 결승전 관람	13 혼밥 미션 저녁 대접	14 박종희 간사님 마중 중간 격려 보고서 발표	15 종희 간사님 관광 가이드 (크리스토 레이, 라르고 레시데레, 꿀메라, 타이스 시장)	16 딜리 → 로뚜뚜	17	18
19	20 아띠클라쎬 활동 재개	21 그룹 학빛 방문	22	23 동네 어르신 장례식 방문	24	25 동영상 제작
26	27 마을 축제 준비 돕기	28	29	30 오전 수업 보조 아띠클라쎬		



1. 딜리에선 무슨 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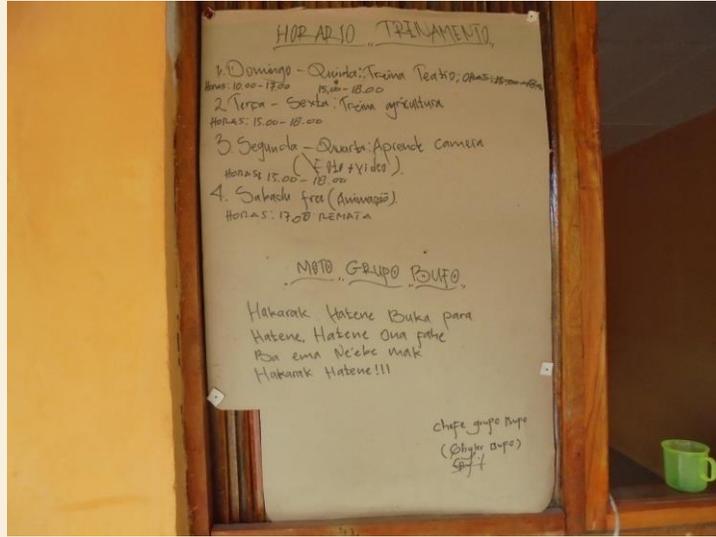
1. NGO 방문

2. 김장하기

3. YMCA 피스컵 관람



딜리에선 무슨 일이?



1. NGO 기관방문

✓ '더 프라미스' 방문

11월에는 아피들이 딜리에 있는 다른 NGO단체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한국 NGO '더 프라미스' 와 동티모르 청년들이 함께 만들고 있는 청년센터였습니다.

많은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인 딜리로 모이지만, 사실 딜리는 청년 실업률이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더 프라미스' 에서는 이러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들에게 농업기술을 가르치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훈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아피들이 방문한 시기에는 이제 막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1. NGO 기관방문

✓ “Sentru Formasaun Ba Juventude no comunidade” 청년 센터 방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호주의 NGO 단체
였습니다!

이 곳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체육관을
마련해서 여가시간에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영어교실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아피가 갓을 때는
‘쏘잉작업’으로 앞치마를 만들고 있는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육아계획을 위해서 생리주기를 알려주는
팔찌와, 여성위생을 위한 면생리대도 지역
여성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딜리에션 무슨 일이?





딜리에선 무슨 일이?



2. 김장하기



아피들은 로뚜뚜마을에서 먹을 밑반찬 준비를 위해 딜리에서 김장을 하였습니다~!
다들 처음하는 김장이라 우왕좌왕했지만, 결과물이 기대했던 것 보다 너무 좋아
뿌듯했습니다>> (행복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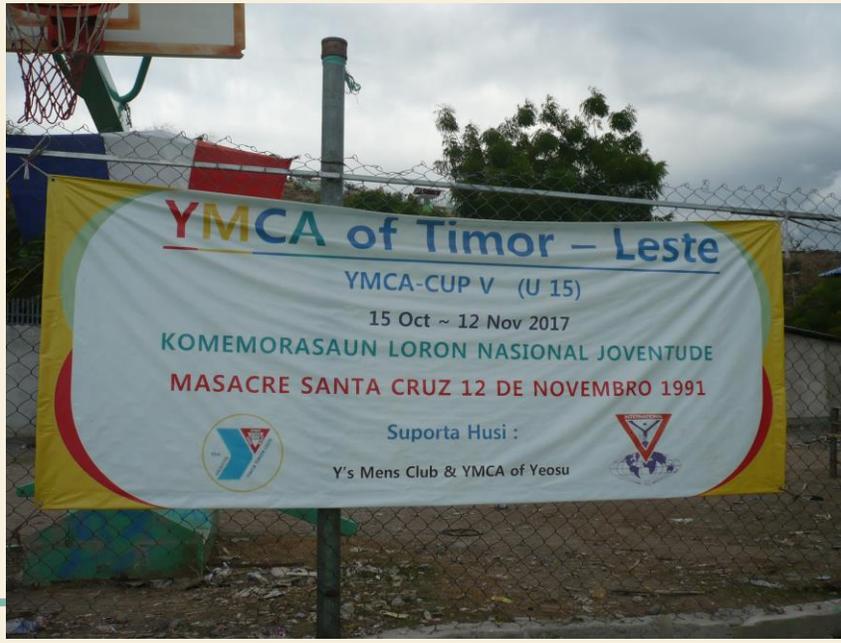
이렇게 딜리에서 만들어 간 김치와 피클은 로뚜뚜마을에서 일주일만에 다 먹었습니다... TT (슬펍!)



딜리에션 무슨 일이?



3.YMCA 피스컵 관람 및 응원



YMCA 센터가 주최하는 유소년 축구대회인 피스컵에 아피드도 함께 응원하러 갔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동티모르 사람들은 경기장을 가득 둘러싼 뒤 경기장이 흔들릴 만큼 뜨겁게 환호했습니다.
한국의 여수 YMCA가 후원해서 더욱 반가웠고 결승전에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YMCA 팀이
우승해서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위후~~!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모두들 경기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Fina

11월에는 여러 NGO단체를 방문할 수 있어서 좋았어!
호주 NGO단체에서는 정말로 동티모르 청년들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것들을
제공하는 것 같아 보였어!



Beti

난 청년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NGO들의 청년센터를 방문할 수 있어서 재미있고 유쾌했어!
특히 티모르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꾸려나가는 '더 프라미스'를 보면서 국내훈련 때
송진호 사무총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어. 그리고 호주센터같은 경우는 면 생리대나 생리주기를
알려주는 팔찌 등을 나눠주면서 실용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서 놀랐어 ㅇㅂㅇ!



Lopes

나는 딜리에 이렇게 많은 NGO단체들이 있을 지 몰라쏘... 그 곳을 방문한 경험이
참 소중한고 다른 NGO단체도 가보고 싶어!



Fina

맞아! 더 프라미스, 그리고 호주 NGO단체를 방문하면서 다른 NGO기관들은
동티모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더
궁금해졌던 것 같아! 다양한 단체들을 또 방문해 보고 싶어!



Anis

특히 더프라미스를 갔을 때 새로운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 농업을 시도했다는 게 자체가 신선했고, 그리고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피스카페만 보다 이제 막 새로 시작하는 더프라미스를 보니 새롭게 탄생하는 조직 특유의 열정을 느낄 수 있어 좋았어! 티모르는 역시 축구지 피스컵 관람했던 것이 정말 좋았어!

저도여 형

응원 열기는 레알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дер비를 연상케 했어요



Lopes



Beti

그리고 로퐁퐁에 가서 먹을 밑반찬을 위해서 같이 김장도 했잖아?! 사실 나는 내가 티모르에서 김장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많은 재료들을 망칠까봐 걱정됐는데 그래도 같이 관심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서 뿌듯했어



매년 한국의 우리 집에서는 엄청난 양의 김장을 했지만 나는 티모르가 처음이었어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네 ㅠ 한국 가면 꼭 김장 도울게요...

Lopes



김장 한 날, 잔소리 하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Anis



그리고 실제로 잔소리를 했지... ㅎㅎ

Fina



2. 중간격려 땀 무슨 일이?

1. 중간 보고회 발표

2. 진정한 중간격려

3. 미션 파서블



중간격려 땀 무슨 일이?



1. 중간 보고회 발표

어느덧 찾아온 중간 보고회 발표...!
걱정했던 것과 달리 편한 분위기에서
아피들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피스카떼 2층에서 떼똥어로 제작한 PPT를
통해 현지간사님과 YMCA 연맹 간사님들,
그리고 현지 코디네이터신 강호 간사님께
구체적으로 아피들의 고민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간사님들께 여러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더불어 마음가짐에 대해 고민 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 진정한 중간격려

간사님들의 진정한 중간격려!
 중간격려 기간동안 아피들은
 늘 배 부른 상태였습니다!
 아피들이 좋아하는 한식부터, 해변가에서
 먹는 수제버거와 피자, 현지 맛집 등등
 티모르 마스터 양간사님 덕분에 배고픔 새가
 없었습니다>>!



중간격려 땀 무슨 일이?





중간격려 땀 무슨 일이?



3. 미션 파서블!



중간격려 기간 중에 받은 아피들의 미션! 점심시간 동안 혼자 딜리를 돌아다니다가 정해진 시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우리끼리는 일명 혼밤미션!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딜리를 돌아 보며 평소 가고 싶었던 곳에 찾아 갈 수 있었던 미션이었습니다.

팀원 모두 나름대로 자기만의 시간을 잘 즐기고 왔고, 팀과 개인의 경계와 그 관계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중간격려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빠른 것 같아 처음엔 부담이 되기도 했어. 하지만 막상 시작하니 오랜만에 감사님들과 재밌게 놀 수 있어 좋았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 수 있어 끝판때! 그리고 많은 나눔을 할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아.

Anis

나도 현채오빠와 비슷한 매력으로 내가 활동하면서 느꼈던 생각과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들이 많았어서 좋았어. 팀 내에서의 나의 역할과 팀 관계에 대해 재정비 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팀원들의 생각과 고민을 많이 들으며 함께 나눌 수 있어 좋았어! 그리고 맛있는 거 나도 많이 먹고싶었는데... 왜 하필 중간격려기간 때 배가 아팠을까... 너무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었는데 나도 정말 먹고싶었어 ㅠ_ㅠ 감사님 또 와주세요... ♡



Fina



나도 그때 오랜만에 기름진 걸 먹어서 배가 많이 아팠어.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먹을 수 없다는 생각에 겁나 먹었어. 정말 많이 먹었어.

Anis



Beti

처음에는 벌써 중간지점이나 왔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루했던 일상에 사무국
간사님들이 오셔서 재미있어!
그리고 중간격려 동안 개인면담을 하거나 팀 나눔때 간사님과 이야기했었는데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었고, 나름 또 다른 중간을 살아갈 힘을 받은
것 같았어!

나도 중간격려 시간이 이렇게 빨리 다가올 지 몰랐어. 오랜만에 사무국 간사님들 만난
것,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한 것, 그동안의 고민에 대한 면담, 모든 것이 좋았어!
다만 그 동안 앞만 보고 달려던 나에게 덩기인지 모를 열이 나는 바람에 중간격려가
끝나가는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이 마음에 걸린다. 간사님들이
정성스레 돌봐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다행히 금방 나아졌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Lopes



Beti

그리고 중간격려 때 내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어.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음식도 음식이지만, 혼밥미션을 했을 때야. 팀원 중 2명이나 카페에서 마주친거야. 참 우리 팀원들이 갈 곳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무언가를 같이 할 때 신뢰가 참 중요하구나를 새삼 깨달았던 것 같아. 그래도 한식을 일주일 동안 싹껏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

혼밥미션 새로웠어! 시작하자마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었던 게 생각이 나네 ㅋㅋ



Lopes



3. 로뚜뚜에선 무슨 일이?

1. 아띠클라씨

2. 소그룹 '학빛' 방문

3. 마을 축제 준비 도움



로뚜뚜에선 무슨 일이?



1. 아띠클라씨



로뚜뚜마을에서의 아띠들의 주 활동! 아띠클라씨!

11월에는 일주일 동안 아띠클라씨를 진행하였습니다. 시험기간과 우기, 그리고 티모르 공휴일 때문에 아띠클라씨에서 많은 아이들과 수업을 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그 와중에 꼬박꼬박 아띠클라씨에 와주는 아이들이 너무 고맙고 좀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로또뚜에선 무슨 일이?



1. 아띠클라씨



아띠들은 전 달의 경험과 그 동안 쌓인 떼뚝어 실력을 바탕으로 알찬 아띠클라씨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점점 클라씨를 진행할수록 처음에 느꼈던 어려움과 고민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익숙해져 가는 아띠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ㅋㅋ!)

	11.20 SEGUNDA	11.21 TERSA	11.22 KUARTA	11.23 KINTA	11.24 SESTA	11.30 KINTA
끝라세1	미술 종이 찢어서 붙이기 예원, 운영, 현채, 상 Raonatti	한국어 기본적 인사말 다이얼로그 상	영어 영어 동요 빙고 게임 상, 현채	미술 종이접기 현채, 운영	체육 가위바위보 우리집에 왜 왔니 O X 퀴즈 예원, 운영	미술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운영, 예원, 현채, 상 Raonatti
끝라세2		영어 신체 부위 영어로 알려 주기 빙고 게임 현채, 예원	미술 종이접기& 그림 그리기 운영, 예원	한국어 기본적 인사말 다이얼로그 예원, 상	체육 림보& 줄넘기 수건돌리기 마피아 게임 상, 현채	
끝라세3	시험기간 때문에 수업 진행 X					



로뚜뚜에선 무슨 일이?



2. 소그룹 '학빛' 방문



로뚜뚜 ymca 간사님인 마웅 아마리노의 초대로 피스카떼 소그룹 중 하나인 '학빛' 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곳에서 커피 레드체리 채집과 가공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학빛' 의 비전과 사업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룹원들의 활동이 뜻 깊어 보였습니다!



로뚜뚜에선 무슨 일이?



3. 마을 축제 준비 돕기



11월 마지막 주는 동티모르가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공휴일이었습니다. 공휴일동안 학교도 문을 닫았고 아피들은 아피클라세를 진행할 수 없어 주로 마을 산책을 다녔습니다.

산책을 다니던 중 축제를 준비하는 이웃들을 보고 아피들도 함께 축제를 준비하는 데 힘을 보탤했습니다! 축제준비를 도우면서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가며 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아피들은 마치 로뚜뚜 마을의 일원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답니다~!



Lopes

다시 올라간 로뚜뚜마을이 이전과는 다르게 날씨가 안 좋고 비가 많이 와서 낯설었어.
휴일도 많아서 아피크라쎬를 많이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워.



Fina

맞아. 진짜 11월에는 티모르 공휴일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여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지만, 것보다 사실 심심했어.



Beti

나한테 이번 2주동안의 로뚜뚜 생활은 힘들고 지루하고 재미없었어.
특히 나는 우기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시즌인 줄 몰랐어. 마침 간 시기가 시험기간과
공휴일이 겹치는 바람에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집에서만 시간을 보냈던 게 아쉬워.
아피크라쎬도 6일간 진행했는데 역시 저번 달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장난기 많은 친구들을
다루는 거, 그리고 수업 보조를 할 때 선생님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조금 쉽게 느껴졌어.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아피크라쎬 친구들이 5명 와 주었는데 너무 고맙고 그 친구들 덕분에 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어.

맞아. 그 5명의 친구들이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 확실히 이번 2주동안은 비가 많이 와서 지난번보다 아피클라쎬에 아이들이 적게 왔어. 그래도 이렇게 오가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와 준 5명의 친구들을 포함해 아피클라쎬에 와 준 모든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Anis

진짜 꾸준히 아피클라쎬에 와 준 그 친구들에게 너무 고마워. 저번 달에 로뚜뚜마을에 갔을 때 보다 이번에 더욱, 아피클라쎬 아이들을 비롯해서 마을 사람들과 정이 든 것 같아! 공휴일이 많아서 활동 한 날이 별로 없었는데, 그럴 때 마다 마을 산책 다니면서 마을사람들이랑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아!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것 같달까? 또 로뚜뚜마을 간사님들이랑 더 친해진 것 같아 좋아! 같이 운동도하고, 장난도 치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더 돈독해진 것 같아.



Fina

맞아맞아! 나도 이번에 로뚜뚜마을에 살았을 때는 간사님들 집에 찾아가서 맛있는 걸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 기억에 남아! 외국어인 페뎀어로 대화했지만 간사님들의 이야기와 조언이 너무 와닿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아. 로뚜뚜 간사님들이 보고싶어.



Beti



Anis

나는 특히 마을 축제 준비를 도와준 경험이 기억에 남아. 그동안 몰랐던 로또뚜
사람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

우기의 로또뚜에서 우리가 준비했던 활동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마을 축제를 도울 수
있어서 윤이 좋았어. 학교에서 봤던 아이들을 더 오래 볼 수 있었고 마을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다시 로또뚜에 올라가면 더 반갑게 인사할 수 있을거야!



Lopes



Beti

마치 라익 마을의 일원이 된 느낌은 나도 이번에 받을 수 있었어. 키오스에 가서 외상을 했을
때 그 충격을 잊을 수 없어. 몇 년째 살고 있는 집근처에서 한 곳도 외상한 적이 없었는데
나같은 외국인을 믿고 외상을 해주셨을까. 그런 믿음을 느낄 수 있어서 신기했어.



Anis

하지만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멀리로 떠난 게 조금 아쉬워. 정말 TV속에서나 나올 법한 큰 물소를 함께 잡아 먹고, 마을의 조벤티들이 모여 춤을 추기도 한단데 이야기로만 듣고 함께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어. 그런데 그 물소의 뿔 하나를 나한테 주기로 약속해 주셨는데, 기억하고 계실까? 갖고 싶다

마을 축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니까 다음에는 진하게 놀아보자.. 로퐁퐁 얼른 다시 가고 싶다.



Lopes



4. 개인에세이 및 사진전



Lopes



Fina



Anis



Beti

Fina:

11월은 유독 스탠바이 상태였던 것 같다. 로투투 마을로 다시 돌아가 활동하기로 했는데, 피스카페 공정무역인증 일 때문에 계속 아피들의 일정이 미뤄지고 있었다. 우리의 일정과 활동계획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지 상황 이므로, 11월 아피들의 활동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은 우리 스스로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었다. 계획했던 일정대로 진행이 되진 않았지만, 스탠바이 상태였던 덕분에 오히려 현지상황을 좀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면서 활동지에 대해 좀 더 깊게 이해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 딜리에서 로투투로 가는 날만을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 보다는, 라온아피로서의 활동을 해보자 해서 딜리에 있는 NGO기관들을 방문하였다. 주 대상이 '청년' 인 두 개의 NGO단체를 방문했는데, 청년들이 무엇 필요로 하는지를 비롯하여 청년들만의 분위기나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평소 딜리에 있는 NGO단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며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이번 활동을 통해 기관이 추구하는 가치와 활동특징 등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아피들은 사무국 간사님들이 티모르에 오시고 중간 격려 보고회까지 마친 뒤에 로투투마을로 이동하였다. 중간격려 기간이 그리 길진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 나는 많은 생각이 들었고, 평소 가지고 있던 고민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 고민이 다시 생기기도 하였다. 먼저 중간격려 보고회를 준비하면서, 이때까지 내가 티모르라는 나라에서 무슨 활동을 해왔으며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돌아볼 수 있었다. 또 사무국 간사님과의 개인면담을 통해서 팀 내에서의 나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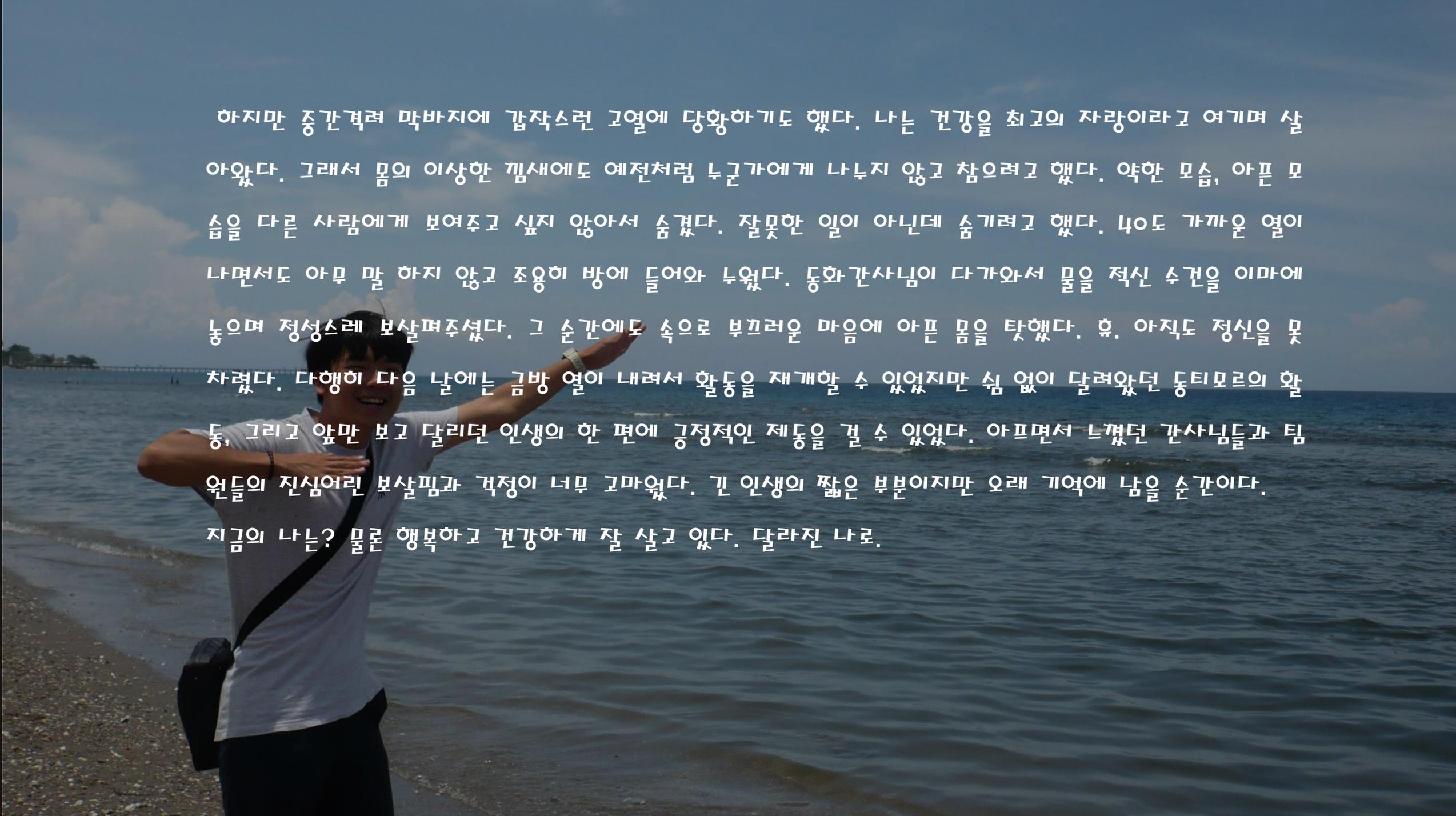
무엇보다 중간격려 기간 동안 나의 고민을 나눌 수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팀원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우리 팀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서로 나누며 조언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좋았다. 팀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나의 시각에서만 이 사람을 혹은 이 팀을 보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내가 만든 프레임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다. 활동의 중간지점까지 와서 그런지 점점 지치기도 하고 내가 부족한 것에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쯤, 마침 중간격려를 받을 수 있어 좀 더 활동에 대한 기대와 에너지가 생겨 감사했다. 이번 2주간의 로퓏퓏에서의 생활은 전 보다 더욱 더 마을에 대한 정이 들게끔 만들었다. 사실 요즘 들어 한국생각이 많이 났는데, 한국의 보고 싶은 소중한 사람을 내 주변에 있는 현지인 즉 로퓏퓏마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소중한 사람과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을 로퓏퓏마을의 사람들과 같이 하다 보니 신기하게 한국생각이 덜 나기 시작했다. 같이 운동하고, 장난치며 얘기하고, 맛있는 걸 만들어 먹으면서 나는 마을사람들과 더 돈독해지며 정이 들었다. 특히 로퓏퓏 간사님들과 더 많이 친해져서 좋다. 마침 우리가 로퓏퓏마을을 간 시기가 오기기도 했고 휴일이 많았던지라 활동이 별로 없어 심심했는데, 그럴 때 마다 간사님들 집에 찾아가 수다 떨고 했던 것이 나의 심심함을 채워줬고,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채워줬고, 마을에 대한 애정을 더 채워주었다.

아직까지도 나에 대한 고민, 관계에 대한 고민, 활동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며 흔들리기도 하지만, 이런 흔들림 안에서 자리 잡는 법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 같다. 라운아피 활동을 중간 정도 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면서 계속해서 성장해나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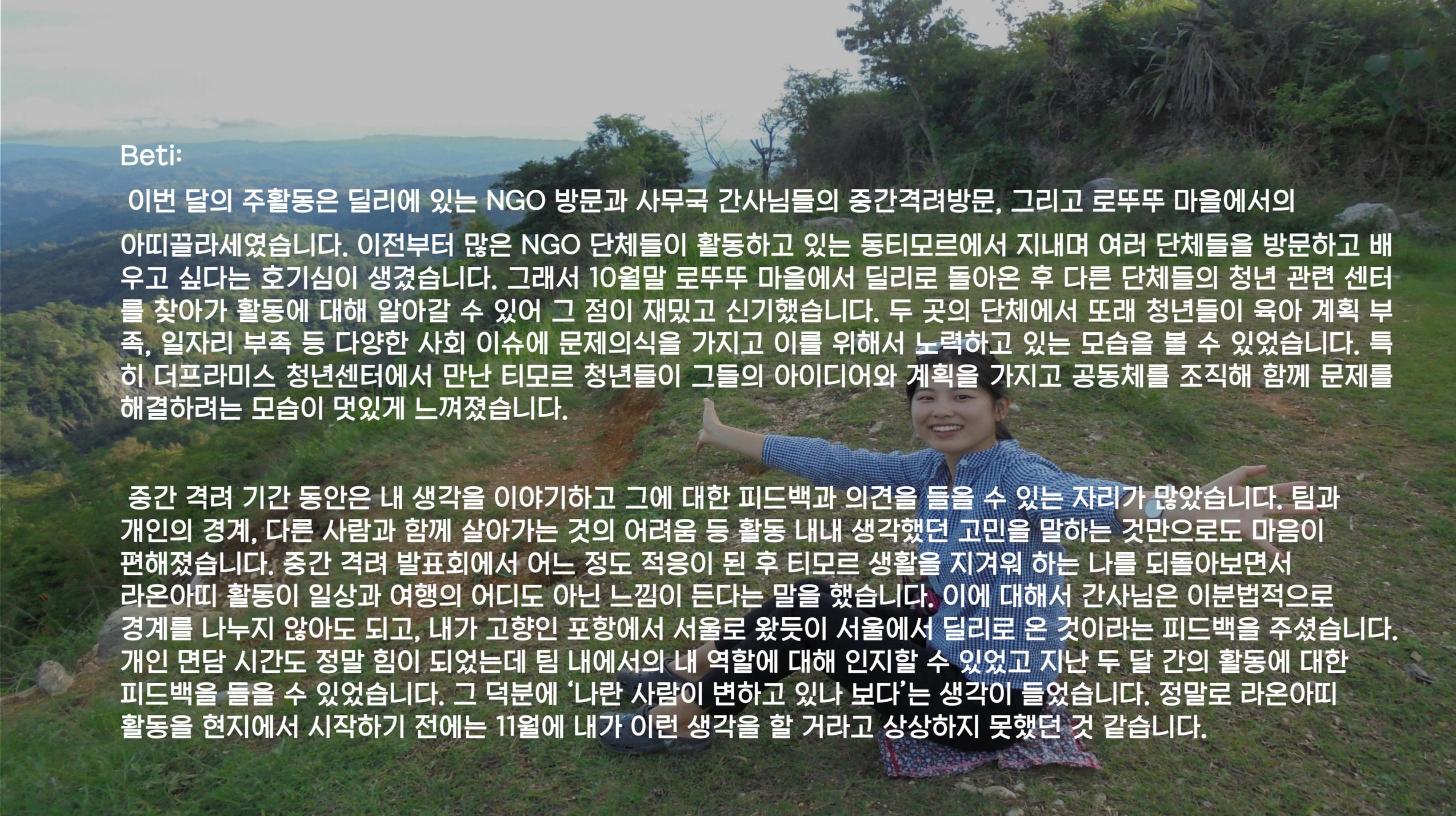
Lopez: 11월은 기다림이 길었다. 다시 올라갈 로푸푸마을을 기다렸다. 곧 있을 중간계류를 기다렸다. 어떤 활동을 기다렸다. 기다림의 시간에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갈 길을 놓고 갈등하고 고민하던 십대의 나날로 이 기다림을 표현할 수 있을까. 더불어 개인 시간이 많이 생겨서 소설도 몇 권 읽고, 인도네시아어도 조금 공부했다. 운동을 꾸준히 했고, 팀 활동으로는 여러 NGO 단체를 방문할 수 있었다. 그동안의 티모르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그려봤다. 그러던 중 중간계류 시간이 다가왔다.

예상보다 이른 중간계류는 오랜만에 볼 간사님들에 대한 반가움으로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긴장했다. 분명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열심히 활동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내 주관의 생각이기 때문에 잘 살고 있었는지 간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었다.

동티모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셨던 동화 간사님께 그동안 궁금했던 폐품어 표현을 가장 먼저 질문했다. 명쾌한 동화 간사님의 답변에 신이 났다. 기본적인 인사와 표현법을 일체 모르고 티모르에 와서 배웠던 야생의 폐품어다. 간사님을 통해 야생의 폐품어가 조금씩 길들여지는 기분을 느꼈다. 오랜 시간 간사님이 동티모르에서 겪었을 시행착오가 녹아든 너무 감사한 나눔이었다. 중간계류의 풍부한 나눔에 몸과 마음이 모두 배부렀다. 이런 중간계류를 '평가'에 비중을 두어서 긴장하고 부담을 느꼈었다. 중간계류 보고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일정이 지난 일주일간 있었지만 이 역시 계류와 사랑의 나눔이 가득한 시간이었다. 우리가 준비한 보고회를 경청해주시고 진심어린 조언을 나누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행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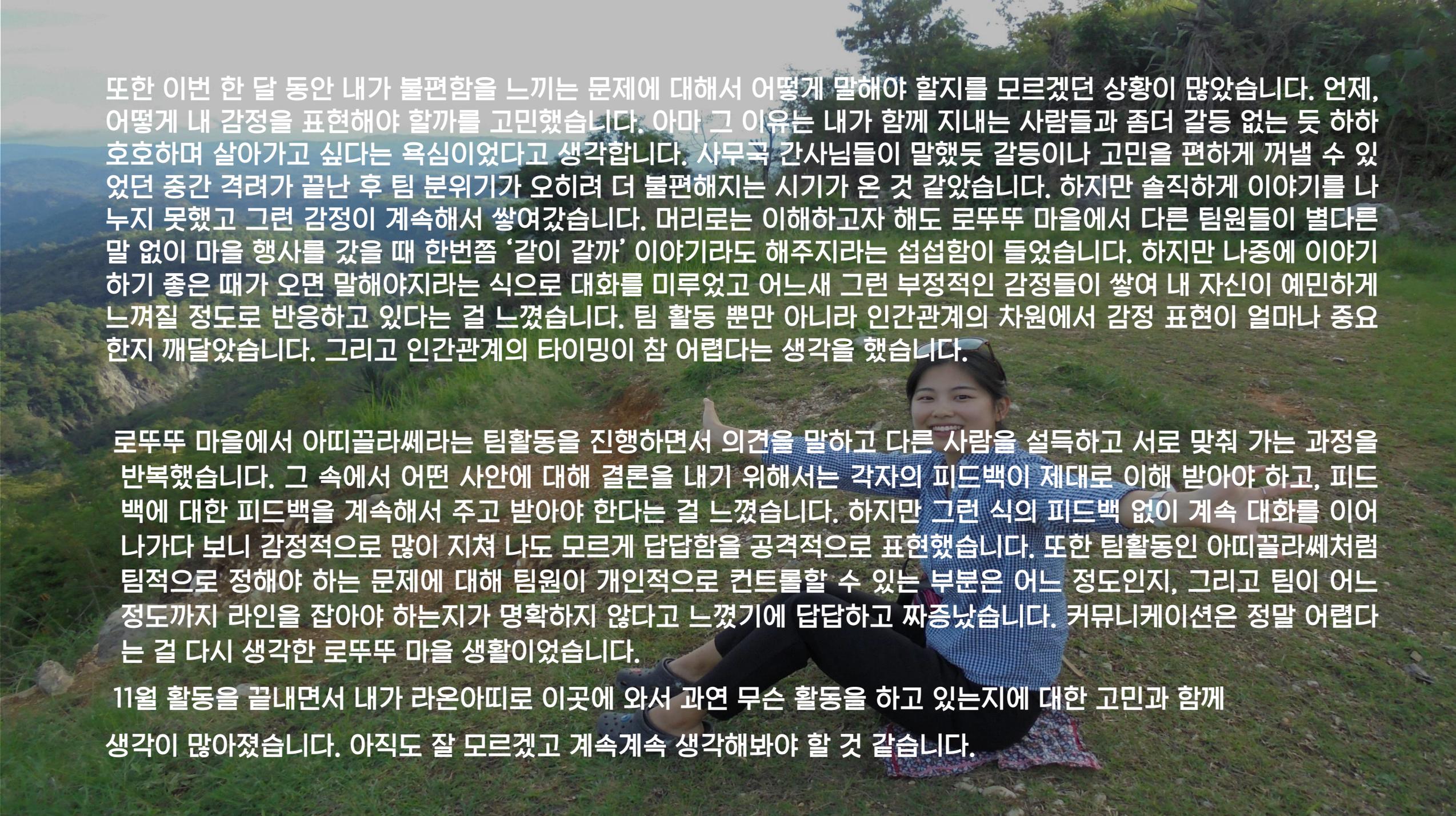
하지만 중간격려 막바지에 갑작스런 고열에 당황하기도 했다. 나는 건강을 최고의 자랑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다. 그래서 몸의 이상한 낌새에도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나누지 않고 참으려고 했다. 약한 모습, 아픈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숨겼다. 잘못된 일이 아닌데 숨기려고 했다. 40도 가까운 열이 나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방에 들어와 누웠다. 동화간사님이 다가와서 물을 적신 수건을 이마에 놓으며 정성스레 보살펴주셨다. 그 순간에도 속으로 부끄러운 마음에 아픈 몸을 타트했다. 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다행히 다음 날에는 금방 열이 내려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지만 심 없이 달려왔던 동티모르의 활동, 그리고 앞만 보고 달리던 인생의 한 편에 긍정적인 제동을 걸 수 있었다. 아프면서 느꼈던 간사님들과 팀원들의 진심어린 보살핌과 걱정이 너무 고마웠다. 긴 인생의 짧은 부분이지만 오래 기억에 남을 순간이다. 지금의 나는? 물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달라진 나로.

A woman with dark hair, wearing a blue and white checkered shirt and a patterned skirt, is sitting on a grassy hillside. She is smiling and pointing her right hand towards the left. The background shows a vast landscape with rolling hills and mountains under a clear sky. There are some trees and bushes on the hillside.

Beti:

이번 달의 주활동은 딜리에 있는 NGO 방문과 사무국 간사님들의 중간격려방문, 그리고 로뚜뚜 마을에서의 아피끌라세였습니다. 이전부터 많은 NGO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동티모르에서 지내며 여러 단체들을 방문하고 배우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월말 로뚜뚜 마을에서 딜리로 돌아온 후 다른 단체들의 청년 관련 센터를 찾아가 활동에 대해 알아갈 수 있어 그 점이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두 곳의 단체에서 또래 청년들이 육아 계획 부족, 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사회 이슈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더프라이스 청년센터에서 만난 티모르 청년들이 그들의 아이디어와 계획을 가지고 공동체를 조직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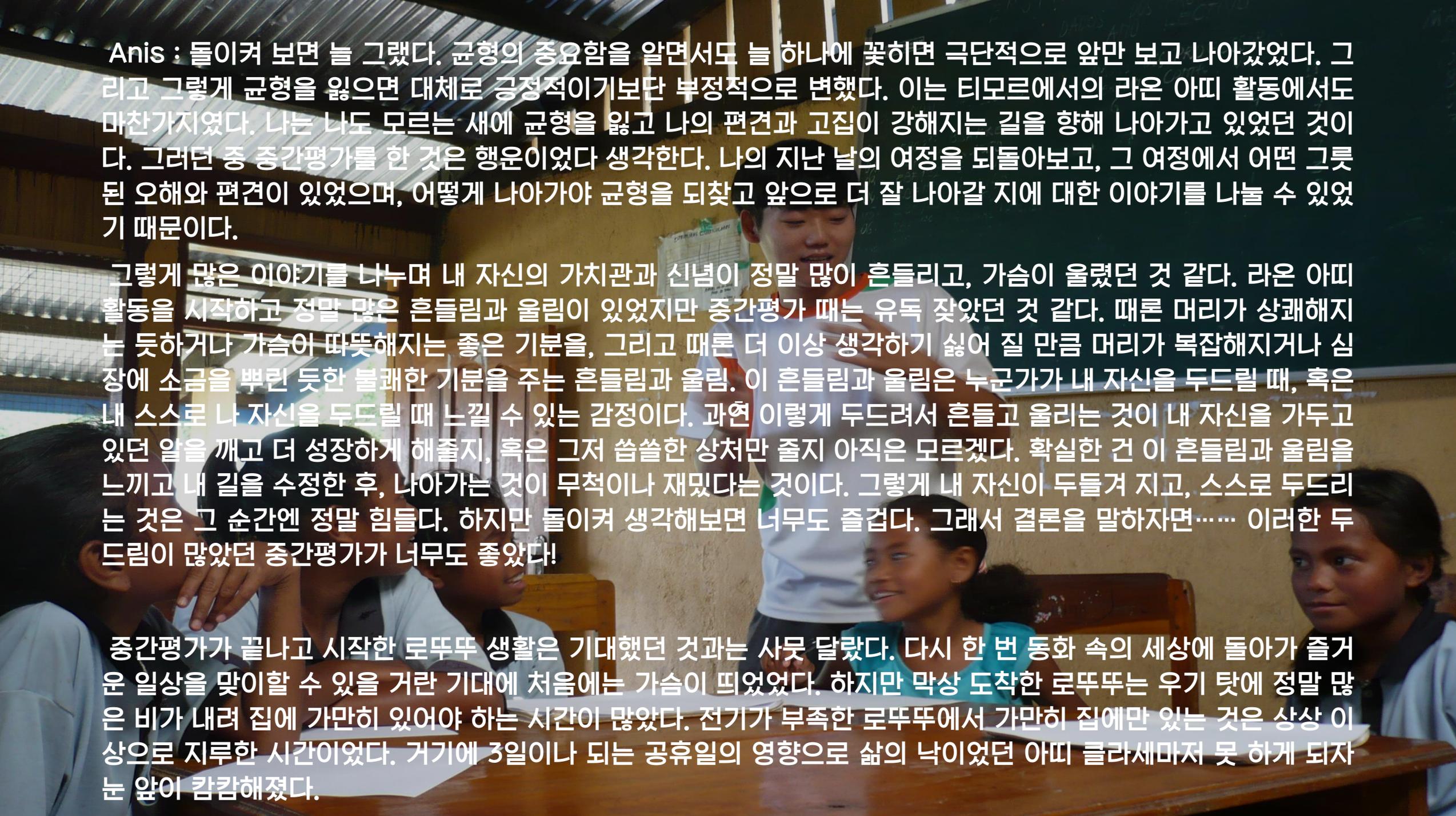
중간 격려 기간 동안은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많았습니다. 팀과 개인의 경계,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의 어려움 등 활동 내내 생각했던 고민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중간 격려 발표회에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된 후 티모르 생활을 지켜워 하는 나를 되돌아보면서 라온아피 활동이 일상과 여행의 어디도 아닌 느낌이 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사님은 이분법적으로 경계를 나누지 않아도 되고, 내가 고향인 포항에서 서울로 왔듯이 서울에서 딜리로 온 것이라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개인 면담 시간도 정말 힘이 되었는데 팀 내에서의 내 역할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고 지난 두 달 간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나란 사람이 변하고 있나 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라온아피 활동을 현지에서 시작하기 전에는 11월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A woman with dark hair, wearing a blue and white checkered shirt and black pants, is sitting on a patterned mat on a grassy hillside. She is smiling and looking towards the camera. The background shows a lush green valley with a river or stream, surrounded by trees and hills under a clear sky.

또한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던 상황이 많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내 감정을 표현해야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내가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 좀더 갈등 없는 듯 하하 호호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욕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 간사님들이 말했듯 갈등이나 고민을 편하게 꺼낼 수 있었던 중간 격려가 끝난 후 팀 분위기가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시기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고 그런 감정이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자 해도 로뚜뚜 마을에서 다른 팀원들이 별다른 말 없이 마을 행사를 갔을 때 한번쯤 '같이 갈까' 이야기라도 해주지라는 섭섭함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야기 하기 좋은 때가 오면 말해야지라는 식으로 대화를 미루었고 어느새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여 내 자신이 예민하게 느껴질 정도로 반응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팀 활동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차원에서 감정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타이밍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뚜뚜 마을에서 아띠끌라쎬라는 팀활동을 진행하면서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서로 맞춰 가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각자의 피드백이 제대로 이해 받아야 하고, 피드백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해서 주고 받아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피드백 없이 계속 대화를 이어 나가다 보니 감정적으로 많이 지쳐 나도 모르게 답답함을 공격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팀활동인 아띠끌라쎬처럼 팀적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팀원이 개인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팀이 어느 정도까지 라인을 잡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느꼈기에 답답하고 짜증났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정말 어렵다는 걸 다시 생각한 로뚜뚜 마을 생활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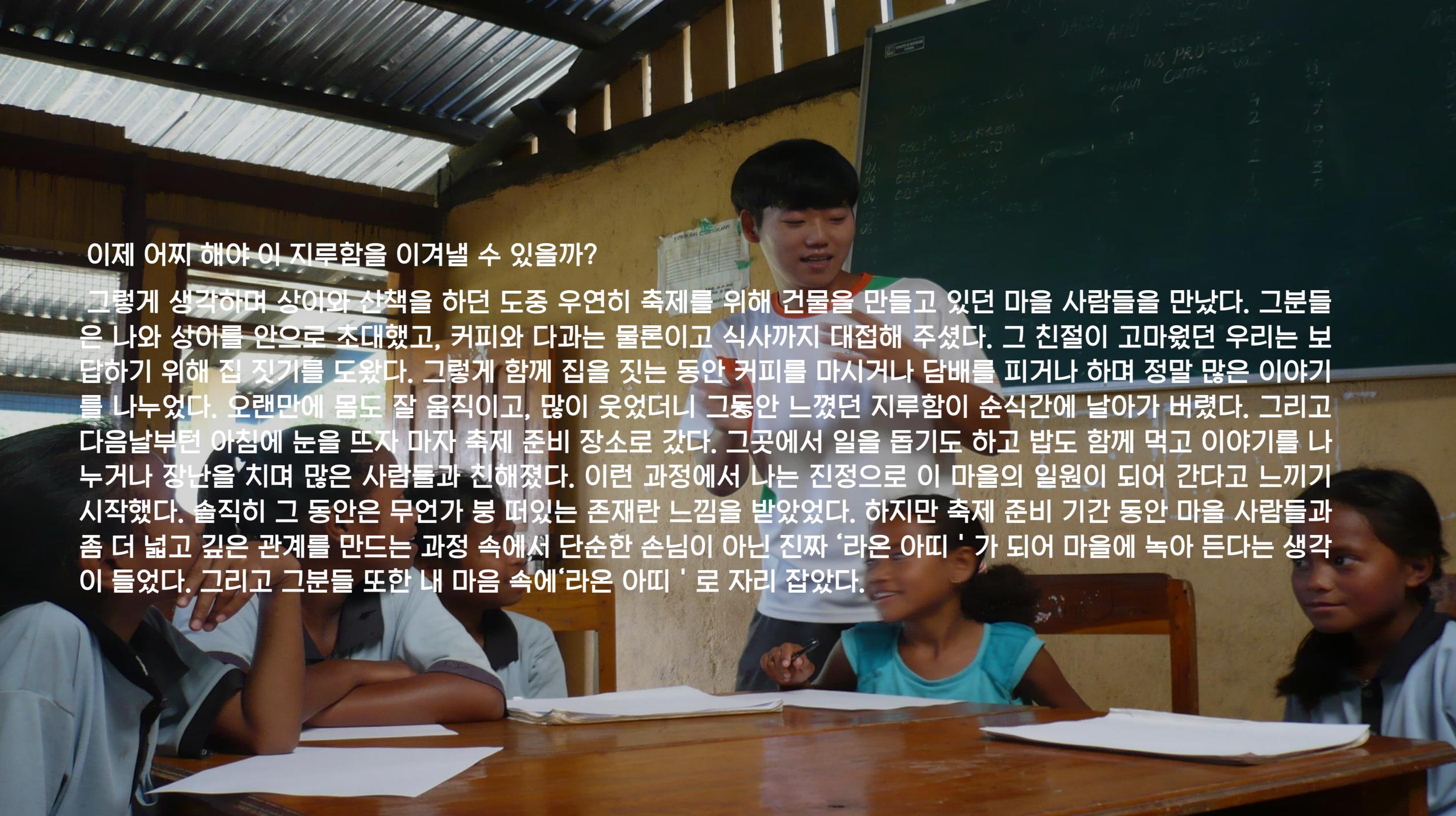
11월 활동을 끝내면서 내가 라은아띠로 이곳에 와서 과연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고 계속계속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A man in a white shirt is standing in a classroom, surrounded by children sitting at desks. He appears to be engaged in an activity with them. The background shows a classroom setting with a chalkboard and some papers on the wall.

Anis : 돌이켜 보면 늘 그랬다. 균형의 중요함을 알면서도 늘 하나에 꽂히면 극단적으로 앞만 보고 나아갔었다. 그리고 그렇게 균형을 잃으면 대체로 긍정적이기보단 부정적으로 변했다. 이는 티모르에서의 라온 아띠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나도 모르는 새에 균형을 잃고 나의 편견과 고집이 강해지는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중간평가를 한 것은 행운이었다 생각한다. 나의 지난 날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그 여정에서 어떤 그릇된 오해와 편견이 있었으며, 어떻게 나아가야 균형을 되찾고 앞으로 더 잘 나아갈 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이 정말 많이 흔들리고, 가슴이 울렸던 것 같다. 라온 아띠 활동을 시작하고 정말 많은 흔들림과 울림이 있었지만 중간평가 때는 유독 잦았던 것 같다. 때론 머리가 상쾌해지는 듯하거나 가슴이 따뜻해지는 좋은 기분을, 그리고 때론 더 이상 생각하기 싫어 질 만큼 머리가 복잡해지거나 심장에 소금을 뿌린 듯한 불쾌한 기분을 주는 흔들림과 울림. 이 흔들림과 울림은 누군가가 내 자신을 두드릴 때, 혹은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두드릴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과연 이렇게 두드려서 흔들고 울리는 것이 내 자신을 가두고 있던 알을 깨고 더 성장하게 해줄지, 혹은 그저 씹쓸한 상처만 줄지 아직은 모르겠다. 확실한 건 이 흔들림과 울림을 느끼고 내 길을 수정한 후, 나아가는 것이 무척이나 재밌다는 것이다. 그렇게 내 자신이 두들겨 지고, 스스로 두드리 는 것은 그 순간엔 정말 힘들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도 즐겁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이러한 두드림이 많았던 중간평가가 너무도 좋았다!

중간평가가 끝나고 시작한 로뚜뚜 생활은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다시 한 번 동화 속의 세상에 돌아가 즐거운 일상을 맞이할 수 있을 거란 기대에 처음에는 가슴이 뜨었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한 로뚜뚜는 우기 탓에 정말 많은 비가 내려 집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았다. 전기가 부족한 로뚜뚜에서 가만히 집에만 있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지루한 시간이었다. 거기에 3일이나 되는 공휴일의 영향으로 삶의 낙이었던 아띠 클라세마저 못 하게 되자 눈 앞이 캄캄해졌다.



이제 어찌 해야 이 지루함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상자와 산책을 하던 도중 우연히 축제를 위해 건물을 만들고 있던 마을 사람들을 만났다. 그분들은 나와 상자를 안으로 초대했고, 커피와 다과는 물론이고 식사까지 대접해 주셨다. 그 친절이 고마웠던 우리는 보답하기 위해 집 짓기를 도왔다. 그렇게 함께 집을 짓는 동안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하며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랜만에 몸도 잘 움직이고, 많이 웃었더니 그동안 느꼈던 지루함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축제 준비 장소로 갔다. 그곳에서 일을 돕기도 하고 밥도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장난을 치며 많은 사람들과 친해졌다. 이런 과정에서 나는 진정으로 이 마을의 일원이 되어 간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솔직히 그 동안은 무언가 붕 떠있는 존재란 느낌을 받았었다. 하지만 축제 준비 기간 동안 마을 사람들과 좀 더 넓고 깊은 관계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단순한 손님이 아닌 진짜 '라운 아피'가 되어 마을에 녹아 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분들 또한 내 마음 속에 '라운 아피'로 자리 잡았다.



네덜란드 보리차 최고~! Diak~!



마치 라이크 캘리포니아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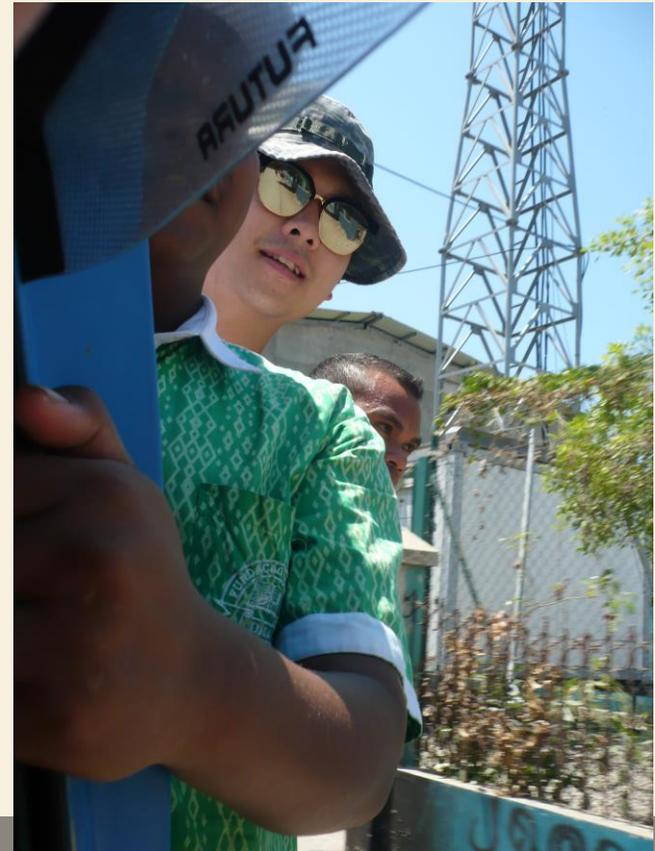
태극기 휘날리며(feat.주
동티모르 한국 대사관)



아니스 샤샤삭



삼촌 미소 ^^
(내 말가면 내놔...)



로페즈 다 코스타



날카로운 턱선의 그는 코코넛을
먹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광주에서 온 선물
에스더 사랑해용 ♥



우비 소녀들



잇몸 만개들



내가 바로 메스트리 아니스.



응 그래~ 파이팅~!



콩콩콩



로뚜뚜 피나네 민박집



로또뚜에 신혼여행 왔어여



사실 혼자 왔어여...



윈도우 배경화면 하나



윈도우 배경화면 둘



살 뺏으니까 괜찮겠지?



위메 쓰...!!!!!!!!!!!!!!



나까르 넷



야 빨리 찍어 무서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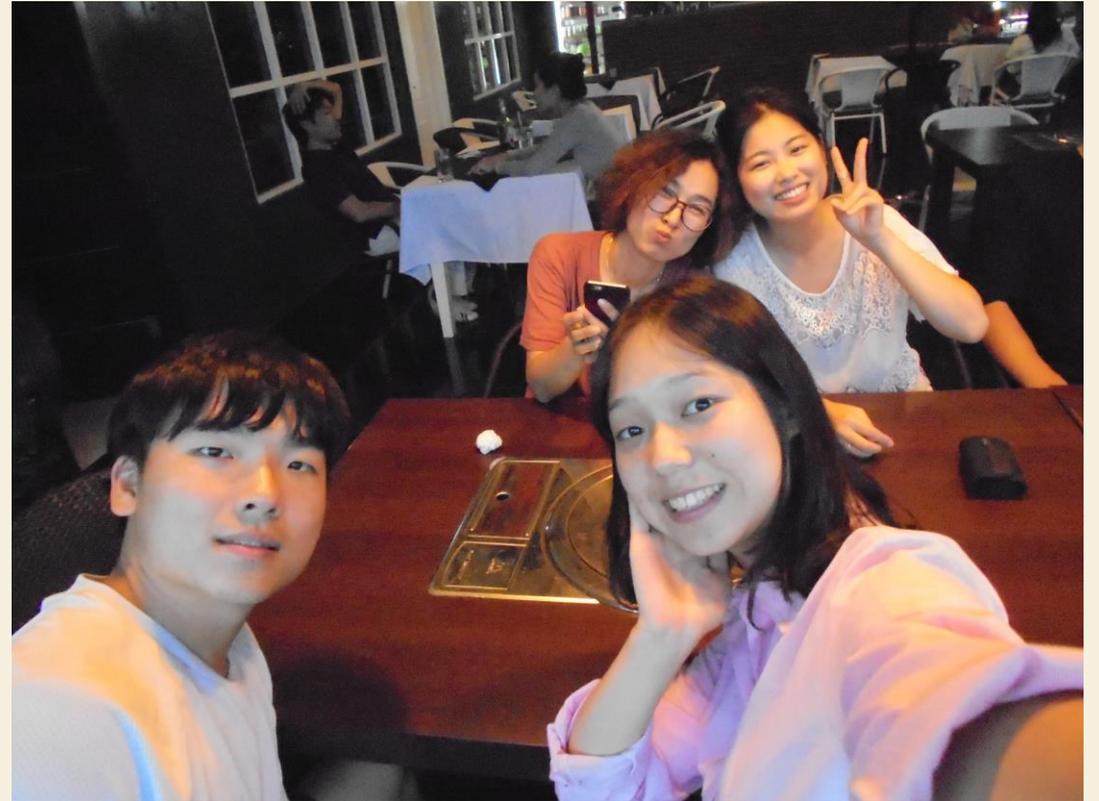
귀염둥이 우리 이나



장난꾸러기 우리 시쿠



형이 말이야~ 흥
군대에서 말이야...~ 흥흥



마나 루나네 4남매
한 명은 화장실 감



1인칭 아니스 시점: 감사님 저도
주세요..;



V^^V



난 피나!
우린 라온아띠!



그 뭐고.
이제 11월 보고서 끝났다.

Ate fulan oin ~
다음달에 봐요~

ROCK
TIDE